

고흥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렴체감도 높인다

QR코드로 청렴·업무비효율 개선 과제 발굴



고흥군청 전경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조직 내부의 청렴 체감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여형 청렴·관행 개선 제안 창구인 '청렴 사이다(Say-Idea)'를 운영한다. '청렴 사이다(Say-Idea)'는 '속 시원하게 말하고, 아이디어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은 청렴 시책으로, 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관행, 청렴 저해 요인, 업무 비효율 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일까지이며, 제안 분야는 ▲관행 개선 ▲청렴 시책 아이디어 ▲업무 비효율 개선 등으로 QR코드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한다. 제안된 내용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개선과제로 선정되면 실제 정책 및 업무 개선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7월 3일까지 신청

보성군은 고유가로 인한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7월 3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6월 28일 기준 지급률은 99.0%로 총 92억 원이 지급됐다. 신청 기한인 7월 3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보성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관내 모든 주유소와 LPG충전소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해남군은 오는 7월 10일까지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법)인이다.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비료 종류(등급), 수량, 업체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20kg 포대당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은 1,600원, 부속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은 등급에 따라 1,300~1,600원이다. 또한 군비 예산규모 및 비종에 따라 추가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는 개인별 공급물량을 확정 후 농협을 통해 공급되고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하여 다른 농가에 재배정하게 된다. /박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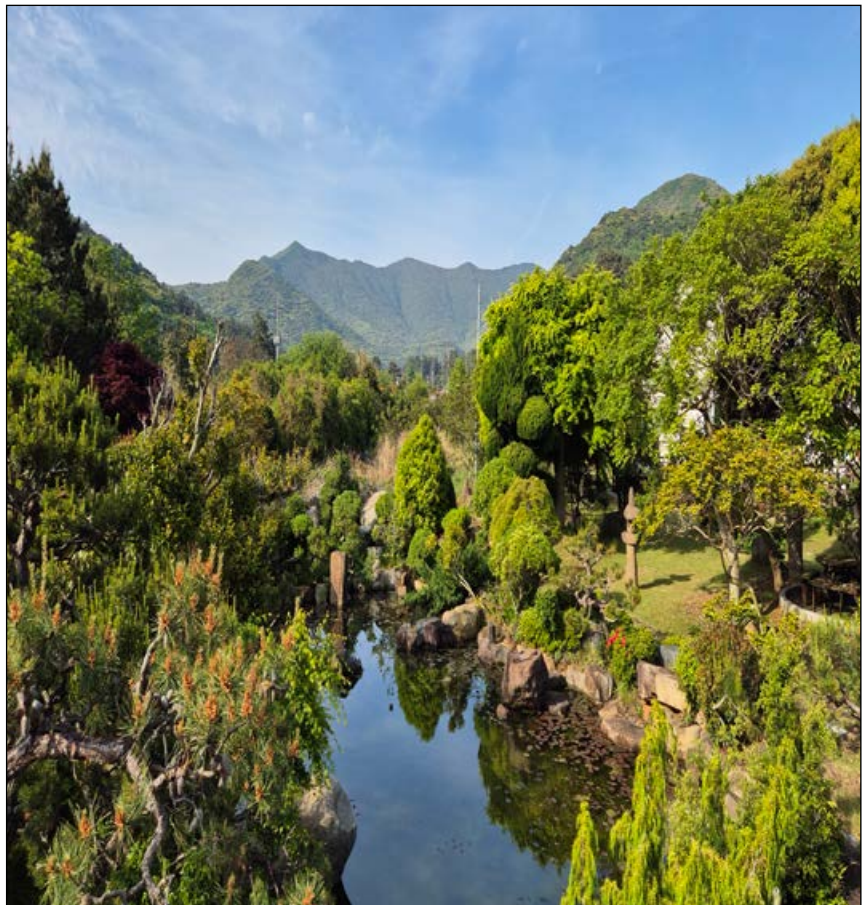
진도 철마도서관, '2026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선정

진도 철마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길 위의 인문학'은 국민의 인문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속 인문 문화의 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인문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철마도서관은 가족 참여형 인문 프로그램인 <자라날 너에게:우리 가족 첫 인문학> 그림책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라날 너에게>는 부모가 삶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가족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이를 한 권의 그림책으로 만들어 자녀에게 전하는 가족 인문 사업이다. 단순한 글쓰기 수업이 아닌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과정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가영 기자

장흥소년수련관, 생성형 AI로 나만의 굿즈 디자인 도전

장흥군청소년수련관(관장 이상돈)은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만의 AI 굿즈 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지역 청소년 12명이 참여해 AI의 개념과 실생활 활용 사례, 저작권 등 책임 있는 AI 활용 방법을 배우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만의 캐릭터를 직접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 도구로 활용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디지털 활용 역량과 올바른 AI 활용 인식을 함께 키웠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전남 예쁜 정원 콘테스트 우수상·특별상 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완도 보길면 시인의 정원 전경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에 소재한 개인 정원들이 '2026년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수상하며 지역 정원 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7회를 맞이한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는 생활 속 녹지 공간 확대와 주민 참여형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되며, 올해 도내 17개 시군의 총 40개소가 참여해 경합을 벌였다. 정원·식물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디자인 및 심미성, 식재 소재의 다양성, 유지 관리 상태,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정원을 선정했다. 지난 6월 25일 '예쁜 정원 콘테스트' 시상식이 열렸으며, 보길면의 '시인의 정원'이 우수상, 노화읍의 '킴스 가든'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시인의 정원'(정원주 김시숙)은 보길도 자생 난대림 교목과 과목류의 조화로움을, '킴스 가든'(정원주

김윤화)은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정원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해당 정원은 전라남도지사 상장과 함께 '예쁜 정원' 인증 현판을 받게 된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수상은 정원주들이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가꾸는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정원을 발굴·지원해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 참여형 정원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 정원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정원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정원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레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